

현대발레 · 무용 공연 익산서 열린다

익산예술의전당,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사업' 공모 선정

익산예술의전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공모한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사업'에 선정돼 현대발레, 무용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사한다.

첫 번째 공연인 '와이즈발레단 VITA'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뉴욕 컴플렉션 발레단 전임 안무가인 주재민의 안무와 연출을 통해 오케스트라 비발디 사계 라이브 연주에 맞춰 VITA라는 창작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간 100여 회의 국내외 공연을 펼치던 와이즈발레단의 VITA는 새로운 감정을 이끌어내며 영화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전막 발레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와이즈발레단은 클래식 발레부터 아트 콜라보레이션(Art Collaboration)까지 다양한 공연예술을 표현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창단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제49회 대한민국문화예술상(대통령상)을, 2018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을 각각 수상하며 예술성을 인정받아 왔다. 특히 다양한 춤과 문화가 만나는 융복합 작업과 단체 특유의 차별성을 토대로 유쾌한 감동을 전하는 등 공연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다음달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공연 '아트프로젝트보라 소무'는 여성의 신체



아트프로젝트보라 소무

를 모티브로 인간과 비인간, 젠더의식을 초월한 새로운 몸의 관계성을 탐구한 작품이다. 소무는 한국 전통 가면극에서 유일한 여성 캐릭터로 각시탈을 쓴 역할의 이름이다. 이에 착안하여 탄생한 작품으로 더 이상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성주의적 메시지를 내포하며, 전통사회 여성의 이미지를 비판적으로 재현했다. 2015년 초연을 한 이후 매년 행렬을 이어온 안무가 김보람이 이끄는 아트프로젝트보라의 대표작이다.

라이브 연주와 수중 무대로 선보이는 소무는 실제 무대 바닥을 물로 채워 인간 생명의 근원이자 여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무용수들은



와이즈발레단 VITA

한국적인 적삼을 입고 물 위에서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김재덕이 작곡한 음악과 함께 여성들만이 펼치는 완전한 세계를 무대 위에서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트프로젝트보라는 공간의 개념을 허물고 다른 장르와의 교류를 통해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싱가포르·일본·독일·네덜란드·벨기에·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프랑스·핀란드 등 해외 각지에서 공연하고 있다.

티켓 예매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건반으로 재즈를 이야기하다'

재즈피아니스트 박종훈,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공연

재즈피아니스트 '박종훈'이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재즈인물대백과사전에서 공연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실시하는 소극장(소공연장) 지원 사업에 선정된 현대음악발전협회(대표 김주환)가 기획한 공연이다.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더 바인홀'에서 연주한다.



타벌은 그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재즈리는 장르로 무대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하며, 도민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을 기획한 김주환 대표는 "가볍게 소비되는 재즈 무대가 아닌, 재즈 음악과 뮤지션에게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었다"며 "공연을 거듭할수록 참여 관객이 늘어나고, 관객들의 집중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걸 보면서 큰 힘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주미니재즈페스티벌-재즈인물대백과사전은 7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4명의 재즈 아티스트가 세계적인 재즈 인물과 그 음악을 소개하고 있다.

공연은 각 회당 1만원으로 예매(사전, 현장)할 수 있다. 예매 및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더바인홀' 검색 후 채널추가를 통해 가능하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문학예술인회관 설계 공모 당선작 발표

종합건축사사무소 창·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공동 응모 작품 선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노후된 전라북도문학관을 철거하고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 건립사업'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당선작 1점과 입상작 4점을 각각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작품심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건축분야 대학교수 3명, 건축사 5명, 전문가 3명 등 총 11명의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관실과 업무관계자, 참가업체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총 6개 작품이 출품됐다. 이 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대표 정현아)과 (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오경택)가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저층 주거지역인 주변환경과 조화를 꾀했다. 대지의 높이를 이용해 기존 담을 허물고 회랑이라는 전통적인 요소로 다방향에서의 접근과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을 형성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당선작을 공동 출품한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과 (주)목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입상작(2등)에는 (주)김중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 입상작(3등)에는 (주)뉴아건축사사무소, 입상작(4등)에는 레이어드건축사사무소와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상, 입상작(5등)에는 이엘에이건축사사무소(주)가 출품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작에는 각각 보상비 2,680만원, 2,010만원, 1,340만원, 670만원이 지급된다.

당선작이 선정됨에 따라 전라북도 문학예술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3,080.79㎡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3년 5월 공사 착공, 2024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이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세움터)에 공개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청 문화예술과(063-280-3387)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살아있는 화석 특별전 개최

남원시가 2022년 여름방학을 맞아 준비한 고생물 특별기획전 '화석이 살아있다'가 오는 29일부터 8월 28일까지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개최(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특별전은 고생대에 살았던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은 기획전으로, 생물들이 멸종된 과정을 통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60여 점의 고생물 화석과 현재까지도 지구에서 살아있는 화석생물 15여 종을 만날 수 있다.

전시 테마는 △지구 타임라인 △호박화석 관찰대 △살아있는 화석 전시실 등으로, 무료체험은 △지구를 지켜라(너프건 미션체험) △고생물 바닷속 포도존이 있고, 유료체험은 △화석 발굴 체험존 △나무의 화석 발굴 체험교육 △공룡 호박화석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한, 전시관 주변에는 스테이 워터파크, 모험체험시설, 예코투스, 캠핑장, 트리하우스 등 놀이시설과 숙박시설이 조성돼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누리 문화장터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문화누리 문화장터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누리 문화장터는 지역적 여건, 고령 등으로 문화 향유가 어려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29일 익산부송주공1차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개장, 도내 문화누리카

드 가맹점에서 선정한 우수 문화상품의 실물을 직접 확인 후 현장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일반 신용카드 또는 문화누리카드도 구입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도 구매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증정된다.

문화누리 문화장터는 익산을 시작으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재단 문화사업팀(063-230-7458)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부안군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3차 공모 선정

부안군문화재단(이사장 권익현, 이하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2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3차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2021년 11월 부안군에서 재단에 위탁한 부안생활문화센터가 지난 2월 1차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26일 3차 공모에서도 최종 선정되어 모두 2천 3백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재단은 그동안 부안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4월 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6월에는 1차 공모지원 사업인 '꿈지락 뽕작, 주민생활공예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이번 3차 공모지원 사업은 '우리 함께 예술로 놀자, 부안!'을 슬로건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예술 베품시장, 소규모 공연과 전시 등 축제를 계획 중이다.

또한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을 청소년 드림데이(Dream Day)로 정해 '청소년 바캉터', '청소년 영화제 도란도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단 노시용 사무국장은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선정된 소감을 전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